

아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시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ime Experiences of
Mothers Participating in Child Counseling

김숙경(Sookkyung Kim)¹⁾

김광웅(Kwangwoong Kim)²⁾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ime experiences of mothers in child counseling and to investigate the meanings of their experience of time. 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and attitudes were adopted as the basic methodology. Participants were five mothers who were interviewed in depth on their time experiences in child counseling. The data were organized by the following contents : (1) Time for compensation, (2) conscious immersion, (3) stagnation, (4) infiniteness and finiteness of time, and (5) facing the past.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 interpreted three meanings discovered in the mothers' time experiences; (1) Reconstructed time : Healing, (2) The child becomes a mirror reflecting the mother, and (3) A new beginning.

Key Words :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시간체험(time experiences),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I. 서 론

만사를 제쳐 놓고(강조) 왔어요. 애가 잘못되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하루는 꼬박 비

워줘야 하니까 너무 바빴어요. 상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바빴어요. 그 시간에 신경을 쓰고 그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게.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게... 그래도 여기 제일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C어머니 이야기

* 본 논문은 2008년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강사,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아동상담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okkyung Kim, Seoul Metropolitan Boramae Youth Counseling Center, 395 Sindaeabangdong Dongjakgu, Seoul 156-010, Korea
E-mail : francisca13@naver.com

그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다 끝냈어요. 그전에 독서미디어도 가기도 하고, 축구교실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어디도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그런 걸 끊고 다른 것은 안했어요. 그때 이거 하나만 했어요. B어머니 이야기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어머니들이 아동 상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위의 이야기들처럼 일상의 시간을 재편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시간 속에 이 상담의 시간을 끼워 놓는 동시에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활동의 시간을 비우게 된다. 이렇게 ‘시간을 비운다’는 것은 어머니와 아이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러한 실천적 결단과 함께 상담은 시작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은 아이와 함께 상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시간의 배치를 하게 되고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시간적 체험을 하게 된다.

아동상담은 성인상담과는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주로 부모가 아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담을 실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에 참여하기 때문에 부모를 배제해 놓고 상담을 지속하도록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O'Connor, 1991) 일이다. 실제로 아동상담 현장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신숙재 · 이영미 · 한정원, 2000; 유미숙, 1997; 정희정 · 이소희, 2003; 주선영 · 김광웅, 2005; 최선미, 2003; Arnold, 1978; Axline, 1947; Kottman, 1995; Landreth, 1991; Liberman, 1979; Mcguire & Mcguire, 2001; Van Fleet, 2000)은 부모상담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여 왔다.

최근 이러한 부모상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부모변인 연구들도 증가되고 있다. 연구의 동향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우선 부모 상담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등의 실태 조사를 통해 부모 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김광웅, 2009; 주선영 · 김광웅, 2000). 둘째, 상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놀이치료자의 공감,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 희망, 놀이치료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연구(박현주 · 김광웅, 2000; 오경미, 2004; 이희경 · 김혜선, 2006)가 이루어졌다. 셋째, 부모-자녀 놀이치료(Filial Therapy)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장미경, 1998; 정계숙 · 이은하, 2008; 최영희, 2006; 최영희, 2007a; 최영희, 2007b). 이는 부모가 자녀들의 삶에서 치료적인 중재자가 되어 아동을 직접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실증적인 연구들은 부모상담의 기초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치료관계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양적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부모가 실제로 상담과정을 통해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상담 분야에서 질적 연구들(기채영, 2006; 신현정, 2008a)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채영(2006)은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치료성과 및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한 결과 부모상담의 치료성과 요인은 크게 교육적 요인과 치료적 요인으로 유목화 하였다. 교육적 요인은 전문적 조언과 정보, 부모교육, 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 치료조력자로서의 훈련 등으로 나타났고 치료적 요인으로는 부모 자신의 문제 상담, 부부관계 문제 상담 등으로 드러났다. 신현정(2008a)은 아동상담의 한 방법인 치료놀이(Theraplay)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변화과정, 어머니를 변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변화요인은 모델링과 교육, 자각, 아동행위의 변화, 시행착오, 그리고 체화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부모상담의 치료성과 요인과 어

머니들의 변화요인을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상담의 성과나 변화요인을 이해하기 이전에 어머니들의 아동상담 체험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담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인 어머니들의 삶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는 것은 어머니들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 아동상담이라는 분야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학문공동체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들에게 이전까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담’이라는 낯설고 한시적인 체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이질적인 체험을 통해 나와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간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체험형식이므로(서덕희, 2007; van Manen, 1994), 어머니들의 원초적인 체험을 이해하는데 근원적인 실존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들이 상담에 참여하면서 체험하는 시간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머니들의 아동상담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어머니들의 체험적 시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식하는 시계와 같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하면 우리는 시계를 떠올리며 측정할 수 있는 양적 개념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시간 감각은 근대의 시계의 발명으로 시작되었다. 인간이나 자연의 리듬으로 의존했던 시간의 흐름이 시계의 발명과 함께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실체로 대두되었다(양미경, 1999).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과는 대조적으로 시간 체험은 시간의 길이나 느낌을 개개인이 다르게 체험한다. 예를 들면,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흘러감을 느끼

고, 반면에 어떤 긴장되는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들을 기다려야 할 때는 그 시간은 매우 지루하고 힘겹게 느낀다.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은 사실 주관적인 것이므로 경험적 시각(the experiential point of view)으로부터, 의미 있는 인간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Lee, 2005). 따라서 시간에 대한 고찰은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Bollnow, 1971). 그러한 이유로 현상학적 시간론에서 의미 있게 거론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경험의 원초성을 확보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험의 구조 속에서 각인되는 시간성(the temporality embedded in the structure of concrete experiences)’일 수 밖에 없다(김영민, 1991; 이부미,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상담을 체험한 어머니들의 주관적인 시간체험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그 체험이 갖는 의미를 현상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본 연구는 아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시간 체험을 탐색하고, 그 특별한 체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의 삶 속에서 형성된 체험의 본질이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현상학적 관점과 태도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최근에 실천적 영역인 교육학, 심리학, 의학, 간호학, 특수 교육학 등의 영역에서 현상학적 연구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향을 가진 사람

들은 ‘실천 현상학(phenomenology of practice)’이라 부르며 현상학의 방법론적 측면을 규명하고 확립하길 원한다(이근호, 2007). 실천현상학이 지향하는 현상학적 관점과 태도는 우선 현실 세계나 생활세계(life world)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 즉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러한 이유로 연구와 삶은 유리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이해된 삶을 다시 삶으로 환원시켜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와 삶은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van Manen(1994)은 ‘체험이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한다. 이는 오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체험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곧 ‘세계와 인간 존재 사이의 본래적이고 전반성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천명하는 것(신현정, 2006; 이근호, 2005; van Manen, 2003)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생활세계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적인 체험을 근대의 자연과학적 연구태도 속에서 곧잘 무시하곤 한다. 그러나 현상학은 모든 지식, 삶의 기반으로서의 일상생활의 세계로 돌아가 우리가 그 세계와 맺고 있는 본래적이고도 원초적인 접촉을 살리려고 노력한다(이근호, 2005; Merleau-Ponty, 1945). 사실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말은 관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며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그러나 현상학에서는 이러한 일상을 관성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봐야 할 삶의 중요한 진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현상학의 출발점은 환원(reduction)을 수행하는 일로부터 비롯해야 한다. 환원은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

의 편견이나 전 이해를 일시 중단하거나 괄호로 묶는(bracketing) 노력이다. 그것은 연구자가 제반 주장들을 해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보려는 노력이며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김숙경, 2008; 이근호, 2007). 또한 다른 한편으로 연구자 자신이 연구 현상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생각이나 이론 등을 주의 깊게 반성하고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연구자로서 갖고 있던 아동상담에 대한 전 이해, 가정 등을 ‘괄호로 묶고’ 끊임없이 현상을 새롭게 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현상을 드러내는 장(場) 자체가 연구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들의 조언대로 최대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친숙한 것을 낯설게(make the familiar strange)’ 보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 현상을 해석하는 순간에도 익숙한 것을 낯설게,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기 위해 연구자로서 갖고 있는 전 이해를 좀 더 반성적으로 들여다보고 해체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상학적 연구는 반성적 실천으로써 글쓰기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텍스트가 가진 호소력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의 글쓰기가 기술과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기술과 해석은 보고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특히 기술은 연구자가 연구하는 현상에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맥락과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을 통해서, 독자들이 그런 현상이나 경험을 마치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5명은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의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심층면담을 위해서는 연구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섭외할 수 있는 연구자의 내담자들,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상담자의 내담자, 그리고 친분이 있는 친구 등으로 목적표집¹⁾ 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친밀도는 많은 질적 연구자들이 조연한대로 자료 수집의 양과 깊이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주호소도 다양하고, 상담 기간, 상담 유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처음부터 이러한 특징들을 선별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상담체험에 관한 보편적인 의미를 드러내고자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 특히 여기에서 주호소는 어머니들이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그것은 어머니들이 일상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상담에 의뢰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어머니는 남매의 어머니로 먼저 첫째아이인 A와 같이 상담을 시작하였다. 둘째아이는 나중에 연구자의 내담자가 된 경우였다. 첫째아이 A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아이는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톨릭 재단의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성당유치원에 보내면서 부모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성당유치원의 학부모들이 아동상담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상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종결 후에 연구자에게 개인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를 하였다.

B어머니는 연구자의 내담자로 우연한 기회에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에서 부모교육을 받던 중, 본인이 먼저 개인 상담을 받고 있었고, 아이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힘든 상황인데 표현하지 않아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어머니 혼자 단독적으로 상담을 결심한 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께서 먼저 상담을 진행하고 계셔서 아이 상담을 쉽게 결정하셨다고 했다. 상담이 종결된 후 현재는 전화상담 자원봉사 일을 하고 있다.

C어머니는 다른 상담자의 내담자로 먼저 첫째아이 C와 상담에 참여하였고, 첫째아이 C가 종결한 후 둘째 아이도 상담 중이다. 어머니는 이혼 후에 아동이 틱(tic) 증상을 보이고 심한 두려움을 보이며 화장실에 혼자가지 못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여 내원하였다고 한다. 처음에 틱(tic) 증상을 보일 때 먼저 안과에만 갔었고, ‘비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하여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또 ‘소아과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정신과에 가보라’고 진단서를 써주었다고 했다. 결국 ○○병원에 갔다가 내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종결 후에 동생과 상담에 참여하고 있었다.

D어머니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1) 연구자가 관심을 둔 특별한 사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연구 참여자로 삼은 표집 방법을 말한다. 연구 참여자를 직접 선택하여 연구하는 것으로서 무선 표집과는 그 방법이나 목적이 다르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추구하는 일반화나 이론검증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무선 표집을 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을 직접 찾아서 선택하여 연구한다(김영천, 2006).

로부터 호출이 있었고, 학교 선생님의 보고에 따르면 일기장에 ‘죽고 싶다’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발견되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때 당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보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었고, 뭔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육과정 내에서 공부하던 중 알게 된 ‘치료놀이’에 아이와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이후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아동상담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놀이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E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이 아이의 증상을 관찰하고 책을 통해 아이의 증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상담소에 내원하여 상담을 의뢰하였다. 종결된 이후에 놀이치료 전문가가 되기 위해 대학원을 진학하였고,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은 어머니로서 자신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했다. 또 아이의 상담체험은 자신의 상담에 대한 동기를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 오랜 기간 교육 분석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놀이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상담이 모두 종결된 참

여자 5명을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구목적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면담내용의 일부분이 그대로 인용되고, 기록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비밀 유지와 익명성을 설명하고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언제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의 일정에 따라 면담 일정을 잡았다. 참여자의 대부분은 상담실에서 개별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의 경우, 참여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각각의 면담 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대략 1시간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었고 면담 회기는 3회기에서 5회기 정도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형식은 비형식적 대화, 비구조화 된 형식이나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질문을 하였고, 2차 이후의 인터뷰 질문은 초기나 이전에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그것을 토대로 궁금한 점이 생성되었다. 그렇게 의문점 등이 제기 될 때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그들이 가능한 시간에 면담 시간을 정해 간헐적으로 만났다. 면담시간이 정해지면 미리 전사한 자료를 참여자에게 메일로 보내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자료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테이프 리코더와 MP3 리코더를 모두 활용하여 녹음하였다. 또한 녹음과 동시에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의 모습, 어조, 분위기, 강조점 등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현장 노트에 기록해 두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았다. 그럼으로써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체험을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면담 당시의 상황을 간략하게 현장 노트에 기록해 놓고, 김영천(2006)의 조언대로 녹음된 면담내용을 당일 다시 듣고 느낀 점 등을 현

2) 연구 참여자 5명 중 2명은 연구자의 내담자였다. 그래서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로서 또 다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상담 과정 동안 연구 참여자로 섭외할 수 없었다. 다만 그들과 상담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각은 현장노트에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담과정에 있는 다른 내담 어머니들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종결된 어머니들을 연구 참여자로 함께 할 수 있었다. 종결된 이후에 만나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체험에 대한 회고를 통해 상담체험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상담 결과에 따라서 시간체험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였으나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상담의 성과와 상관없이 어머니들은 그러한 시간을 유사하게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장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수집된 면담 자료는 여러 번 반복하여 청취하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메모해 두었다. 당시에 가능한 연구 참여자의 살아 있는 기술을 위해 그들의 어조나 강조점에 따라 마치 시나리오와 같이 전사(transcription)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 일까를 곱씹어 보기도 했다. 그것을 토대로 연구자에게 의미 있게 포착되는 부분은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및 해석³⁾은 van Manen (1994)의 현상학적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분석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다. 우선 위와 같은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획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반성을 통한 주제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규칙에 얽매이는 과정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자유로운 행위라는 van Manen (1994)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미를 포착하고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자료와 대화관계를 형성하여 여러 번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면서 자료의 행간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썼다.

먼저 초기에는 자료를 면밀히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에 제한 없이 카테고리 설정하는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하였다. 특히 코드 명칭은 김영천(2007)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생활세계를 잘 드러내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이는 주로 연구 참여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내부자적 용어(emic term)이다. 초기 코딩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코딩들을 보다 분석적으로 범주화하고 선별화하는 심층코딩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일상 언어에 집중, 다양한 예제, 글 고쳐 쓰기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을 하였다. 그렇게 포착된 의미들을 중심으로 글쓰기, 고쳐 쓰기, 다시 쓰기 등의 과정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의 발견과 통찰을 조직하고 정리하려고 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하였다. 아동심리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6명과 함께 해석학적 대화를 하고 한명에 의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영천(2007)에 따라, 연구 참여자중 한명에 의한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 참여자가 어떻게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외부자인 연구자가 내부자인 참여자의 세계를 얼마나 근접하게 그려나가고 있는지 참여자가 평가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었다.

III 연구 결과

1. 어머니들의 이동상담 시간 체험

이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들을 반성하며 어머니들의 시간체험을 1) 보상의 시간, 2) 의식적인 몰입의 시간, 3) 정체, 4) 시간의 무한성과 유한성 ; “끝은 어디인가?”, “한계”, 5) 과거와 마주하기라는 다섯 가지 측면으로 유목화 하였다.

3) Wolcott(1994)는 기술, 분석, 해석을 구분하였는데 기술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하는 일”이며,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하는 일”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분석의 질은 분석하는 내용과 형식의 과학적 체계성과 치밀성에 달려있고, 해석의 질은 학문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럴듯함’을 인정받는가에 달려있다(조용환, 2006).

1) 보상(報償)의 시간

일부러 집에 까지 걸어갔거든요. 한 30분 걸리는 데 올 때는 버스를 타고 갔지만 갈 때는 많이 걸어갔어요. 겨울에도... B는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엔 저희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빠 월급이 적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힘들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많은 걸 못해줬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도 괜찮았는데 부모 마음은 아니잖아요. 해줘야 될 것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제가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잘 안 사줬어요. 많이... 어느 정도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어느 날 마트를 가서 “먹고 싶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애들이 못 골라요. 하나? 하나 정도 밖에 못 골라요. 그래서 가슴이 대게 아팠거든요. 내가 애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잠시 침묵) 오고 가는 시간에는 못 해줬었던 것들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먹는 맛에도 걸어갔어요. B도 경제적인 것이 강하잖아요. “엄마 버스타고 돈으로 꼬치 하나 사 먹을까?”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걸어가고 어느 날은 힘들 때는 “엄마! 버스타고 가요” 그러면 버스 타고 오고 그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B어머니 이야기

A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갔다오면 너무 좋아진 모습으로 들어오니깐.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개 즐거워했어요. (웃으며)... 아이들이 어릴 때, A가 5살이니까, 동생이 3살이었죠. 그때에 일을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근데 제가 A를 낳고 동생이 바로 태어나니깐 버거우시잖아요. 집 안에서 그냥 아이들 돌보는... 거의 비디오를 보면서 키우셨어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놀이터에 아기들이 나가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그걸 못해줬으니깐... 이렇게 상담실에 와서 오고가는 그런 시간들... ○○공원을 지나서 아이들과 오고가는 시간들은 참 좋았어요. 어쨌거나 밖으로 나오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자꾸 찾아주려고 했어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엄마는 더 없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저희 부모님이 바깥에 내 놓고 키우시길 않으셨어요. 너무 가두다시피... 그러니까 우물 안 개구리, 온실의 화초처럼... 저도 그 시간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요. 아이도 편안한 상태니까 저도 편안하구요.

A어머니 이야기

상담과정은 상담자와 어머니, 아이와 각각 관계를 맺지만, 특히 어머니와 아이는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 주체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상담을 위해 구성된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시간 외에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상담을 위해 오고가는 시간은 과거에 아이에게 미처 해주지 못했던 행위를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B어머니와 같이 지난 날 ‘사주지 못했던 음식들’을 사주기도 하고, A어머니와 같이 아이와 ‘바깥에 나가서 놀지 못했던 부분’을 새롭게 해줌으로써 오고가는 시간은 어머니들에게 잃어버렸던 과거의 시간으로 회귀하여 그 시간을 다시 재구성하는 시간이 된다.

또한 이 시간은 어머니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어머니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종의 결핍을 무의식적 보상으로 채움으로써 어머니에게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된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아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

2) 의식적인 몰입의 시간

그 때는 제가 B만을 위해서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큰애 걱정도 하고 다른 것도 생각하고... 몸은 B를 위해서 왔었는데 애를 위해서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한테 집중을 안하고 분산되었던 것 같아요. 2학년 가을부터 제가 B한테 집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오다가 낙엽 많아 가지고 같이 뿌리고 놀았다고... 저는 제가 해주면서도 자연스럽게 한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강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개는 그게 대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겨울에... 올 겨울에는 그런 게 없어서 서운했었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길거리

에 그때는 낙엽을 안 치웠어요. 모아만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B가 가면서 발로 막 휘 집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올해도 하는 것 보면 그 아이한테는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도도 했어요. 집 앞까지 걸어가는 시간 한 30분 되는 거리를 일부러 걸어 가요. 올 때는 급하니까 나랑 타고 오고, 그냥 일부러 자전거 뒤에다 싣고 와요. 어느 정도 ○○공원 후문 쪽으로 오면 개도 그거 타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네가 타고 가라고 하고... 왜냐면 이제 덜 위험하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타고... 그랬어요.

B어머니 이야기

어떤 책을 보니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어느 쪽 문이 열릴까? 이런 거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탈까? 이런 거 게임도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랬어요. 배운 데로 막... 우리나라서 한 게 아니라 배운 대로 막 했어요.

E어머니 이야기

상담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은 상담실에 내원하며 자연스럽게 아이와 함께 존재하게 된다. 아이와 함께 ‘있다(being)’는 것은 진정으로 아이와 동일한 시공간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와 동일한 시간에 존재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다른 차원에 가 있는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달려가 아이와 함께 ‘지금-여기’에 존재하지 못함으로써 진정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꼭 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는 과정이 아니라도 아이와 함께 하는 이 시간은 아이와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시간’이다. 양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그런데 B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어머니는 다른 많은 생각, 예컨대 다른 가족들을 생각 하며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른 일들을 생각 하며 아이와 함께 존재하지 못하는, 그래서 현재에 존재하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불일치를 경험한다. Csikszentmihalyi(1990)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는 심리적 엔트로피(entropy)라고 불리는 내

적 무질서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자아는 주의를 집중하여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특히 상담실에 와서 상담에 참여하는 것만이 상담의 일련의 활동으로만 생각해왔던 어머니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은 비밀비재한 일이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이와 오고 가는 시간을 진심으로 함께 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B어머니와 같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 놀이를 하기도 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일부러 ‘유도’하기도 한다. E어머니의 경우 전철을 타고 상담실을 오가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놀이도 찾아서 시도해보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와 함께 존재하고자 하는 의식적 행위를 통해 ‘상담’이라는 현상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아이에게 몰입하는 그러한 경험이 B어머니의 말대로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생각을 하고’ 한 의도적인 행위이다. 상담이라는 구조적인 틀이 있듯이 어머니들 또한 현재의 시간을 나름대로 구조화하고 몰입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시간을 구성해 나간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어머니들에게서 나타나는 의도적인 몰입은 시간을 망각하는 ‘무아지경’의 몰입과는 상당히 다르다. 자신의 일에 대면하여 온전히 그 일에 빠져드는 몰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3) 정체

매 세션 가는데 반복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떨 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도 같고...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는데 왜 이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꼈어요. 아이에 대해서 말씀 드렸을 때는 편안해

지고 또 제 행동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셨네’ 라고 돌려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반복되고 굴곡을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별로 크게 올라가지 않는 상태들이 지금은 그냥 인간 삶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 안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A어머니 이야기

아이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받았으면 많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내 느낌은 어땠나 하면은 정말 처음부터 애착이 잘못 되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때 내 느낌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제 환경적인 조건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나한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었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본 거예요. 그때 사실 나는 충격이었어요.

E어머니 이야기

어머니들이 상담실에 내원한다는 것은 아이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꿈꾸며 매 시간 상담실을 내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와의 관계나 아이의 변화가 크게 진척되지 않고 반복될 때 어머니는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무언가 관성적으로 반복되는 일상과 같은 시간을 ‘다람쥐 쳇 바퀴 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다람쥐 쳇 바퀴 돈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다람쥐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다람쥐는 어떠한 변화도 일구어 내지 못하고 시간의 변화도 감지하지 못한다. 일보의 진전이 없이 움직인 거리를 느끼지 못함으로써 단지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변화가 없는 순간을 느낄 때, 마치 시간은 멈추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변화의 흐름이 곧 시간의 흐름이고 그것은 곧 미래를 지향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상담실에 온다. 그런 그들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고 반복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 어머니들은 좌절을 경험한다. 변화를 기대하고 희망했던 어머니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E어머니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체의 현상, 변화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현재와 미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머니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다.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느낌인 것이다. 상담 초기에 기대했던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으로 지각한다.

4) 시간의 무한성과 유한성 : “끝은 어디인가?”, “한계”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기간 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끝이 어디냐는 거죠. 음... A 같은 경우는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A어머니 이야기

낯기를 바라면서 오지만 뭐 맘대로 딱딱 딱딱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과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휴... 빨리 확 나아서 빨리 끝났으면(강조) 이런 마음이었어요.

E어머니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루한 과정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어머니들은 ‘끝은 어디냐?’는 말로 시간의 무한성을 드러낸다. 미미한 변화를 보이는 아이를 지켜보며 도대체 ‘끝은 어디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빨리 이 지루한 여정이 끝나길 바란다. 초기에 상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어머니들은 생각했던 것만큼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고 정체되는 과정을 거치며 ‘영원’

과 같은 시간성을 체험한다. Heidegger(이수정 · 박찬국, 1999)의 말처럼, ‘세계-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간은 돈’이라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그래서 상담과정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E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상담시간은 곧 돈으로 환산된다는 인식이 어머니들 안에 자리 잡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끝이 없는’ 시간처럼 지각하게 된다.

그러나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변화를 욕망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음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너무 한계예요. 엄마가 건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아이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하면서,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화가 아이에게 투사된다고 할까요? 아이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 만나는 게 한 10분 정도 만나는데 10분 갖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10분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안 다루어지는 거죠. 엄마 개인의 심층적인 이야기는 안 다루어지고... -중략-
따로 몇 번 시간을 내어 만나기도 했지만 택도 없이 부족했죠. A어머니 이야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욕망하는 어머니는 “한계”라는 말로 상담시간의 유한성을 체험하게 된다. 어머니는 상담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규칙적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서 결국 아이와의 관계의 문제는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정체되는 기간을 거치며 그러한 생각은 더욱 어머니의 마음 안에 공고해지는 것 같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깊은 원의는 부모상담 ‘10분’을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지각한다.

어머니들이 체험하는 상담에 대한 시간의 무한성과 유한성의 상반되는 시간성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인과관계가 있다. 내 아이의 변화의 진도는 한없이 느리고 미미함을 느끼며

이제 이 지루하고 애매한 여정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체’의 기간은 자신을 알게 하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따라서 어머니 자신의 변화의 열망은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오랜 세월 자신을 공고하게 구성해온 시간적 경험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는 것 같다.

어머니들은 상담시간을 효율적이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근대적 시간관념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완전한 시간처럼 느낀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엔 단지 아이의 문제만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이와 자신과의 관계를 보고, 서로의 삶이 유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심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어머니 자신의 존재 양식을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시간체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타자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와는 달리, 나를 바라볼 때의 상담 시간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어머니들은 아동상담이라는 틀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시간의 유한성을 체험한다.

5) 과거와 마주하기

나를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가족을 보고 이게 하나의 거울 역할을 했다고 하나? 그거 거울 역할이 되었어요. 내가 늘상 굉장히(강조하여) 굉장히(강조하여) 고마워한 부분이 D가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D어머니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엄마나 아버지나, 부모님한테서

사랑과 힘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다시 내 곁에서 나눠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굳이 어디서 막 찾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의 힘이 그냥 커서 자녀를 낳고, 그럼 그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이 힘들더라고요.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많았고, 엄마에 대한 부분도... - 중략 - 어쨌거나 제가 그때 받아보지 못한 그 부분들이 제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A어머니 이야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적 조건들에 눈을 돌리게 된다. 모든 인간 존재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누적된 시간성을 벗어나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이와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다. A어머니와 같이 자신이 힘들었던 근원적인 원인을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추론한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아이와 나의 과거의 시간성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현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간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머니들에게 시간성이란 나와 아이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 있는 통합체로 구성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이부미, 1999) 것이다.

어머니들에게 과거는 단지 흘러간 고정된 시간구조가 아니다. D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어려웠던 시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하면서 그들의 감정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첫 인터뷰 때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안에 슬픔이 있었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번의 인터뷰를 거치며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서사(敍事)가 되어서 마치 유머

처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음을 느꼈다. 어머니들에게 지난 과거를 마주하는 것은 어머니들 안에 내재해 있는 슬픔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것은 기쁨이다. 슬픔과 기쁨의 상반된 감정은 마치 세트처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여유가 생겼고 그 시간적 경험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 어머니들의 시간체험의 의미

이상에서는 아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시간체험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체험이 어머니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들의 상담체험의 의미를 1) 재구성된 시간 : 치유, 2) 아이는 나의 거울, 3) 새로운 시작으로 집약하였다.

1) 재구성된 시간 : 치유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보상의 시간을 보내며 이제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과거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 다니면서 애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다시 떠오르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이런 아이가 있어.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애는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했는데 내가 상담에 간다는 자체가 개를 다시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런 보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죄책감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C어머니 이야기

C어머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듯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상담실에 내원한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과거에 아이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미안함과 회한으로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한 태도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예전의 자신의 잘못을 과잉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아이의 마음을 살피기도 하고, 아이와 대화의 맥락도 진술하지 못하는 등 자신을 속일 때도 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함에서 오는 불일치는 더욱 어머니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도 한다. 이런 고통 중에 있던 어머니들은 그러한 보상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어머니들이 되돌리고 싶었던 과거의 시점으로 회귀하여 그 시간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과 아이 간의 불편했던 감정을 반전시키고 화해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체험은 어머니와 아이에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게 한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은 단지 ‘생각’으로만 충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다. ‘행위’를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살아내야만’ 존재의 충만감이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어머니와 아이에게 치유를 의미한다. Winnicott (1948a : Greenberg & Mitchell, 1983에서 재인용)의 말대로, 치유는 잃어버렸던 돌봄을 다시 제공하고 해주지 못했던 충분히 좋은 환경을 다시 제공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 재구성된 시간은 바로 ‘다시 살아남’을 통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살게 할 힘을 갖게 된다.

2) 아이는 나의 거울

항상 어른처럼 자라야 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고 부모를 원망했었는데

결국은 내가 “내 아이만은 잘 키워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태까지 친정부도 남편과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내 애만은 나랑 똑 같이 키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내가 애를 똑같이 키웠을 뿐 아니라 내가... 그 뭐라 해야 하나? - 중략-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던 게 엄마였는데, 결국은 나도 D한테 또 똑같은(강조) 원인을 제공하는구나. “개 모습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D어머니 이야기

보편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알기가 어려운 것 같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어머니들도 최초로 아이와 함께 내원했을 당시에는 나와 아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단지 문제의 범위를 아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이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상담이라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마주하며 D 어머니의 표현대로, 아이는 나를 볼 수 있는 ‘타자’이자 ‘거울’이 되어준다. 사실 아이는 내가 아니지만, Lacan의 말처럼, 주체인 어머니는 아이의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 아이가 상대하는 이미지가 바로 자신임을 발견하게 된다(김석 역, 2007). 이러한 발견은 어머니들에게 크나큰 통찰이 된다. 그것은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은 넓어지고 나아가 나를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발원되는 것 같다. D 어머니의 말대로, 아이에게 “똑같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구나”를 느끼며 나와 관련된 부모와 환경을 둘러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입구가 되어준다.

결국, 상담의 시간은 일차적으로 아이를 위해 제공했지만, 중국에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시간이 되어준다. 사실 이러한 시간의 제공은 어머니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아이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이와의 힘들었던 관계양상의 원인을 알게 되고, 왜 아이와 힘들고 자신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앞’이 어머니 자신 안에서 구성된다. 그것은 아이를 통해 자신을 비추고, 자신 안에 있는 아이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한 깨달음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깨달음 곧 ‘앞’은 우리 삶을 재구성해 나가는 원천이 된다. 물론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힘’이 되어, 내 삶의 ‘변화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 ‘앞’은 상담이라는 시간 속에서 체험한 앞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는 더욱 설득적이었다. 아이라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실존적인 체험은 어머니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발견일 수 있다.

‘앞’이라는 경험은 우리에게 항상 유쾌한 일이 될 수 없고, 어쩌면 내 존재를 흔들 만큼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는 것이 힘’이 되어 자신에 대한 선협적인 이해의 좁은 세계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자 하는, ‘변화하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정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새로운 시작

상담에 참여했던 어머니들은 상담과정을 종결하면서 실제적으로 상담실에 내원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서 어머니들이 상담에 대한 관심과 갈망을 덮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A 어머니는 아이의 상담이 종료된 후, 몇 달이 흘

러 개인 상담을 하기를 원했고, B 어머니는 전화 상담 자원봉사로, D 어머니와 E 어머니는 상담공부를 시작하고 자기 분석을 시작하는 등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실존적 노력을 기울였다. 어머니들은 상담의 시간체험 속에서 시간의 무한성을 체험하며 “끝이 어디인가?” 자문하였지만, 자신을 직면하고 보게 되면서 “한계”를 느끼는 시간의 유한성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간 체험을 거쳐 결국 상담이 종료하자 어머니들은 시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기라도 하듯, 새로운 결단을 하고 자신을 위한 상담과 자기 분석과정, 그리고 상담자가 되는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예전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깨달음을 통한 ‘앞’으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갈망, 변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실존적 목표가 생긴 셈이다. 그것은 상담이 종결한 후에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어머니 앞에 ‘남아 있는’ 과제의 이행은 어머니들이 자신을 위해 내어던져야 하는 또 하나의 실존적 삶의 과정이 되었다. 아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한 아동상담은 어머니에게 자기 인식을 이끌어 내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무의식적 열망을 촉발했다.

아동상담의 과정은 그것이 종결과 함께 그 영향력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아이의 성장은 물론 어머니들의 새로운 성장도 도모하는데 시발점이 된다. 물론 우리의 변화가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의 변화과정이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 안에서 자기반성과 통찰을 통한 ‘앞’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무(無)’가 되지는 않는다. ‘무’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어머니들은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열망을 더욱 느끼게 된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거는(생각에 잠기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침묵)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 아이의 문제가 결국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주었던 거죠. 그 아이의 문제를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문제의 고름의 근이었다는 거죠. 고름이었다면 개가 고름에 단지 없어 있을 뿐이고 개가 터트려 줌으로써 나머지가 터져 나온 거죠. 시발 탄이었다고 해야 하나?

D어머니이야기

D어머니의 말처럼, 아동상담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고름의 근’을 보고 그 고름을 치유하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되었다. 그 갈망은 어머니에게 자신을 위한 내적 과제로 인식되고, 어떤 누구의 현실과는 상관없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현실이 되었다. Sartre의 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진 삶은 존재하지 않듯이(이서규 역, 2003), 어머니는 매순간 자신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자 하고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상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시간체험의 양상을 탐색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머니들에게 있어서 아동상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상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어머니들은 아이와 함께 보상의 시간을 가지며 과거에 아이에게 미처 해주지 못했던 행위를 보상해 주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은 상담 초기에 다른 생각에 마음이 분산됨으로써 현존하지 못하였으나, 아이와 함께 하고자 의식적 몰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의식적 몰입은 시간을 망각하는 몰입과는 다르며 온전히 그 일에 빠져드는 몰입과는 다른 모습

을 보였다. 그리고 ‘정체’의 시간을 거치며 어머니들은 “끝이 어디인가?”라는 시간의 무한성과 “한계”라는 시간의 유한성을 동시에 느낀다. 또한 어머니들은 상담을 통해 아이와 자신의 삶을 연결하는데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였다. 이러한 시간체험을 통해 어머니와 아이의 과거의 시간을 재구성하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어머니에게 아이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욕망하게 되는 시간이 됨으로써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관련된 논의를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기채영, 2006; 신숙재 외, 2000; 유미숙, 1997; 주선영 · 김광웅, 2005; 최명선 · 김광웅, 2005b; 최선미, 2003; Arnold, 1978; Axline, 1947; Landreth, 1991; Liberman, 1997; Siskind, 1997)에서는 부모상담의 중요성과 치료 효과와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부모가 아동의 삶과 발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상담의 중요한 치료적 변인이 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들이 효율적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상담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아동상담의 한 주체인 어머니가 단지 아동상담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상으로만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보상의 시간을 체험하며 자신이 과거에 갖고 있던 죄책감 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았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어머니 자신 또한 치유해 가고 있었다. Winnicott(1948a : Greenberg & Mitchell, 1983에서 재인용)의 말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주지 못했던 충분히 좋은 환경을 다시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는 아이대로 치유를 경험하고, 어머니

는 어머니대로 그러한 보상을 통해 자신의 죄책감과 불편했던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상담은 아동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머니 또한 아동상담을 통해 치유되는 요체임이 드러났다. 아동상담에서 변화는 한 주체만의 일방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상호주체간에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신현정, 2008b)이라는 주장과 같이, 아동의 치유와 부모의 치유는 유기적 관련을 갖고 있다.

둘째, 최근 아동상담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이론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다(최명선·김광웅, 2005b).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모 개인의 문제까지 다루는 부모상담(counseling for parents)과 조력자로서 양육에 대한 자문(consultation with parents)을 주는 면담을 구분 짓고 있다(김광웅, 2009; Kottman, 2003; McGuire & McGuire, 2001). 한편 우리나라 임상가(신숙재 외, 2000)는 부모를 중요한 내담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치료가 지연되기 때문에,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아동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치료과정은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역할의 모습은 문화에 따라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상담과정 속에서 시간의 무한성과 유한성을 동시에 체험하게 됨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을 비추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욕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어머니들의 시간적 체험의 발견은 우리나라 임상가들(신숙재 외, 2000)의 주장과 같이 부모를 내담자로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토착화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이해를 재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상담이 종결한 이후에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반성적 체험을 드러내 보였다. 종결한 이후에 만나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체험에 대한 회고를 통해 상담체험을 반성해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시간적 간격으로 어머니들의 체험이 더욱 반성적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상담의 시간체험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의 전 과정에 참여 관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기체영(2006).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의 치료성과요인 및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9(2), 41-58.
- 김광웅(2009).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실태조사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1), 47-63.
- 김광웅·유미숙·유재령(2004). *놀이치료학*. 서울: 학지사.
- 김광웅·김화란(2006). *놀이로 이해하는 우리 아이: 처음 만나는 놀이치료*. 서울: 속대출판국.
- 김광웅·최명선·류진아·정유진(2006). 아동상담 연구 동향. *놀이치료연구*, 9(3), 47-65.
- 김석 역(2007). *에크리 리앙으로 이끄는 마법의 문자들*. 서울: 살림.
- 김숙경(2008).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활동에서 인정의 의미: 상담자의 관점에서. *교육인류학연구*, 11(2), 147-172.
- 김영민(1994). *현상학과 시간*. 서울: 도서출판 까치.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박수영·이재연(2005). 국내 놀이치료 연구 동향: 놀이치료 관련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1997-2003). *한국생활과학회지*, 14(1), 47-57.

- 박현주·김광웅(2000). 놀이치료 현황 및 놀이치료에 대한 어머니의 상담 만족도 연구, *놀이치료연구*, 3(20), 11-21.
- 서덕희(2006). 홈스쿨링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참여 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덕희(2007). “여유”의 교육적 의미 : 홈스쿨링의 시간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25(2), 63-90.
- 신숙재·이영미·한정원(2000). *아동중심 놀이치료 : 아동상담*. 서울 : 동서 문화원.
- 신현정(2008a). 아동상담에서의 어머니 변화 : 치료놀이(Theraplay)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65-97.
- 양미경(1999). 교육과 시간 : 시간의 의미에 대한 교육적 이해. *교육과정연구*, 17(1), 93-114.
- 오경미(2004). 놀이치료자의 공감능력과 내담아동 어머니의 상담자 평가 및 부모상담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1997). *놀이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상조사.
- 유혜령(2004). 아동교육 연구의 현상학적 전통과 과제. “교육 자체로” : 교육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한국교육인류학회 2004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유혜령(2005). 아동교육 연구의 현상학적 접근 : 역사와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8(1), 57-90.
- 이근호(2005). 달과 손가락 :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적 현상학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인류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근호(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부미(1999). ‘공동육아’ 문화의 교육적 해석.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이서규 역(2003). *현대철학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수정·박찬국(1999). *하이데거*.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희경·김혜선(2006).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과 희망이 부모상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1), 55-72.
- 장미경(1998). 아동중심놀이치료 기법을 이용한 부모-자녀관계 증진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계숙·이은하(2008). 부모-자녀 놀이치료를 통한 부적응 유아의 대인관계 증진 사례 연구. *이동학회지*, 29(1), 63-86.
- 정윤경(2001). 국내의 놀이치료 연구 동향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이소희(2003). 놀이치료 종결과 관련된 변인의 탐색 연구. *놀이치료연구*, 6(2), 56-71.
- 조용환(2006).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주선영·김광웅(2005).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현황 및 부모 상담에 대한 상담자. 부모의 인식연구. *놀이치료연구*, 8(1), 49-60.
- 최명선·김광웅(2005b). 아동상담에서 부모와 치료자간 치료관계에 대한 연구. *이동학회지*, 26(3), 111-125.
- 최선미(2003). 놀이치료 내담아동 어머니의 대상관계 수준과 치료적 동맹.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희(2006). 부모교육으로서의 부모놀이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이동학회지*, 27(5), 1-17.
- 최영희(2007a). 공감과 수용에 초점을 둔 부모놀이치료의 추후효과. *이동학회지*, 28(3), 45-59.
- 최영희(2007b). 부모놀이치료 효과 재검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 53-63.
- Arnold, L. E. (1978). *Helping parents help their children*. New York : Brunner/Mazel.
- Axline, V. M. (1947). *Play Therapy*. New York : Ballantine Books.
- Bollnow, O. F. (1982). *교육의 인간학[Padagogik in anthropopogischer Sicht]*(오인탁 역). 서울 : 문음사(원전은 1971에 출판).
- Csikszentmihaly, M. (2004).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flow[.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최인수 역). 서울 : 한울림(원전은 1990에 출판).
- Greenberg, J. R., & Mitchell, S. R. (1999). *정신분석적*

-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서울 :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은 1983에 출판).
- Kottman, T. (2003). *Partners in Play :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2nd ed). Alexandria, VA : ACA Press.
- Landreth, G. L. (1999). 놀이치료 : 아동 중심적 접근 [*Play Therapy : The art of relationship*](유미숙 · 이영미 · 장미경 역). 서울 : 상조사(원전은 1991에 출판).
- Lee, K. (2005). *A Traveller's Tale : The Experience of Study in a Foreign Langu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B.
- Liberman, F. (1979). *Social work with children*. N.Y. : Human Science Press.
- McGuire, D. K., & McGuire, D. E. (2008). 놀이치료에 서의 부모상담[*Linking parents to play therapy*] (김광웅 · 강은주 · 진화숙 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1에 출판).
- Merleau-Ponty, M. (2002).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류익근 역). 서울 : 문학과 지성사 (원전은 1945에 출판).
- O'Connor, K. J. (1991). *The play therapy primer. An integration of theories and techniques*. New York; Wiley.
- Siskind, D. (1997). *Working with parents : establishing the essential alliance in child psychotherapy and consultation*. NJ : Jason Arosen.
- Van Fleet, R. (2000).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parent resistance to play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9(1), 35-46.
- van Manen (1994). 체험연구 :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Researching lived experience :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신경림 · 안규남 역). 서울 : 동녘(원전은 1990에 출판).
- van Manen (2003). Lived experience, Lewis-Beck, M., Bryman, A. & Liao, T. F. eds.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Thousand OA, CA : Sage Publication.
- Wolcott, H.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 Sage.

2009년 4월 30일 투고, 2009년 7월 6일 수정
2009년 7월 7일 채택